

# 유배일기 작품의 문헌서지적 특성 연구(1)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비교\*

조수미\*\*

〈차례〉

1. 서론
2.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의 이본 현황
3.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이본 비교
  - 1) 내용상 차이
  - 2) 표기 형식상 차이
4. 결론

〈국문초록〉

유배일기는 필사본 유일본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간행본으로도 전승된다. 전승 형태에 따른 유배일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 작품의 각기 다른 이본에 해당하는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를 비교하였다.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를 비교해 본 결과 내용상으로는 ‘한시 전문’, ‘특정 발언이나 장면’, ‘추가 정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었고, 표기 형식상으로는 높임을 드러내는 띄어쓰기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한시 전문’은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에만 수록되어 있었고, ‘특정 장면이나 발언’이 어느 한 이본에만 기록된 예도 있다. 인물이나 지명 등에 대한 ‘추가 정보’에서도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상세함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기 형식상의 측면’에서는 존경을 표시하는 띄어쓰기에 있어서 이본 간 차이가 뚜렷했다.

비교 결과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는 문헌의 완결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494)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나 우수성에 있어서 우열을 나누기 어려웠고, 표기 문자만으로 독자층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과 표기 형식상에 보이는 작은 차이들은 각 이본의 주 독자층에 대한 전승자의 배려와 심사숙고가 반영된 결과였다. 즉 두 이본이 보이는 작은 차이는 대상 독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만들어낸 차이인 것이다.

**주제어** <임인유교>, <星山遺事>, 한글 필사본, 한문 간행본, 문헌 서지적 특성

## 1. 서론

유배일기는 필사본 유일본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간행본으로 전하고 더 드물게는 필사본과 간행본이 함께 전승된다. 전사(傳寫)되었거나 간행되어 전하거나 간에 그 과정에서 어떤 번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본 간 차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현전하는 유배일기 작품은 대략 50여 편인데<sup>2)</sup>, 이 가운데 필사본과 간행본(목판, 석판, 활자본 포함)의 비율이 대략 2:1이다. 한글본과 한문본의 비율은 이보다 더 불균형해서 한글본은 전체 유배일기 가운데 10% 내외에

1)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41~42쪽.

2) 유배일기 작품은 황위주(「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910쪽)와 최은주(「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김미선(『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1~384쪽), 박현순(「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 쓰기」, 『한국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73~118쪽), 최은주(「한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39~364쪽) 등 이후의 연구성과들도 참고하여 대략 50여 편으로 추정하였다. 편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앞으로 새롭게 발굴될 작품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불과하다. 전승 형태에 따른 유배일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필사본 전승 작품과 간행본 전승 작품 전체, 한글본과 한문본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이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배일기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전승 형태가 다른 이본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에 비교 대상 작품으로 한글 필사본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를 선정하였다. 유배일기 가운데 필사본과 간행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게다가 두 이본은 필사본/간행본이라는 차이 외에도 한글본/한문본이라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헌의 측면에 있어서 대척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두 가지씩이나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이본은 문헌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이본을 비교한 결과를 유배일기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 특정 작품의 이본 사이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이본의 비교 결과는 한글 필사본과 한문 간행본 사이의 전형적인 문헌적 차이가 유배일기라는 특정 장르와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글 필사본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를 비교한 연구는 앞서도 있었다.<sup>3)</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참고하되 이본

3) 이승복, 「〈遺教〉의 書誌와 文學의 性格」, 『규장각』 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55~73쪽. ; 조수미, 『조선 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에서 3종의 이본들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본 연구의 논지와 다르지 않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遺教』본 〈임인유교〉보다 『壬寅遺事』본 〈임인유교〉가, 또 그보다는 한문본이 더 구체적이는데 그 이유는 필사자의 고의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후자의 연구에서도 이본 간의 내용상, 표기상 차이를 더 자세히 고찰한 뒤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앞선 연구들은 이본 간 차이의 양상에 대해 살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차이의 양상을 세밀히 살피는 데서 더 나아가 의미를 탐색

간에 드러나는 차이의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2.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의 이본 현황

『遺教』와 『壬寅遺事 夢窩星州遺教 附竹醉富寧遺教』(이하 『壬寅遺事』)는 김수항 가문의 3대에 걸친 유배와 사사에 대한 기록이 함께 묶인 문헌이다. 김수항은 기사환국(1689)에, 김창집과 김제겸은 신임사화(1721~1722)에 연루되어 유배 사사(賜死)되었는데, 『遺教』에는 김수항, 김창집, 김제겸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 3편이 차례대로 <기사유사>, <임인유교>, <임인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여 있다. 『壬寅遺事』에는 김창집, 김제겸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만 차례대로 ‘무제’, <선고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여 있다. 『遺教』와 『壬寅遺事』에 실린 이 일기들은 모두 한글 필사본이다.

이 가운데 김창집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는 이 일기의 서술자이자 김창집의 조카인 김신겸의 문집 『櫛巢集』에 한문본 <星山遺事>로도 실려 있다.<sup>4)</sup> 정리하자면 김창집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의 이본은 『遺教』와 『壬寅遺事』에 각각 실린 한글 필사본 2종과 『櫛巢集』에 실린 한문 간행본 1종이 있다.<sup>5)</sup>

그런데, 한글 필사본이 2종 존재하므로, 이 가운데서 한문본과 비교할 한글본 선본(善本)을 확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본을 확정하기 위

---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 4) 『遺教』, 『壬寅遺事』, <星山遺事>에 대한 서지 정보는 이승복(1997), 위의 논문, 56쪽 참조.
- 5) 이본(異本)은 “同一類의 書籍으로 傳來에 의하여 字句가 달라진 책”(류탁일,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8쪽)으로 정의된다. 김창집의 유배를 기록한 일기 3종도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동일류의 서적이 전사 혹은 인쇄되는 과정에서 자구가 달라진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므로 각각은 별개의 작품이 아니라 동일 작품의 이본이다.

해 『遺教』본 <임인유교>와 『壬寅遺事』본 <임인유교>를 내용과 표기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이본 간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적 측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표1. 한글본 이본 비교 : 내용상 차이>

번호	『遺教』본 <임인유교>	『壬寅遺事』본 <임인유교>	비고
①	가노호시고묘말진초의고종하시다	×	누락(?)
②	×	후명도스의일흠은도문보라/풍양니참관 희도라/오진사라	세주(細註)
③		섬이란말씀이라/정즈께는당단이라/마덩 리는파쥬라	
④		바람이니흐면일만남기춤추단말이라	
⑤		승지알고종도그곳을아는니이시니	

위 표의 ①은 『遺教』본 <임인유교>에만 있고 『壬寅遺事』본 <임인유교>에는 없는 내용인데, 일기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다. 후명(後命)<sup>7)</sup>을 받은 부군이 ‘용검의 손을 달라 하여 쥐었다가 놓으시고 묘말진초(卯末辰初)에 고종(考終)하시다’라는 내용 가운데, ‘가~’ 이후의 문장이 『壬寅遺事』본 <임인유교>에는 없다. 부군의 고종(考終)을 명시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매우 정성스럽고 정확히 필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壬寅遺事』본 <임인유교> 자체가 원래 생략이나 오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전사나 작품을 한데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sup>8)</sup>

6) <표1> 인용문의 현대어 표기(필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 놓으시고 묘말진초에 고종하시다 ② 후명도사의 이름은 조문보라/풍양 이참관 희조라/오진사라 ③ 섬이란 말씀이라/정즈께는 당단이라/마덩리는 파쥬라 ④ 바람이 일어나면 일만 나무가 춤추단 말이다 ⑤ 승지 알고 종도 그곳을 아는 이 있으니

7) 유배죄인에게 사사(賜死)를 명하는 것.

8) 전사자의 실수일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壬寅遺事』본 <임인유교>

②~⑤는 반대로 『遺教』본 <임인유교>에는 없고, 『壬寅遺事』본 <임인유교>에만 있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②~④는 본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 놓은 세주(細註)다.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이름이나 직책 등), 지역에 대한 정보, 시에 대한 풀이 등을 보충하였다. ⑤는 세주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세주의 기능과 비슷하다. 부군이가 비석 돌의 위치를 곁에 앉아있는 조카 등에게 알려주고 나서 덧붙인 말인데, ‘아들인 승지(김제겸)도 알고 있고 집안의 종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석 돌의 위치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더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기법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자음과 모음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자음 영역에서 표기상의 차이가 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2. 한글본 이본 비교 : 표기상 차이-자음〉

번호	『遺教』본 <임인유교>	『壬寅遺事』본 <임인유교>	현대어 표기
①	아지 못하고	아디 못하고	알지 못하고
②	고치시거늘	고티시거늘	고치시거늘
③	원정초	원정초	원정초
④	은권이점점등ㅎ시니	은권이점점중ㅎ시니	은권이 점점 중하시니
⑤	도희	조희	중이
⑥	글들홀쓰시니	글들홀쓰시니	글 돌을 쓰시니
⑦	고쳐쓰셔	고쳐쓰셔	고쳐 쓰셔
⑧	천만싱각밭괴	천만싱각밭괴	천만 생각밖에
⑨	경능골어귀길꺾	경능골어귀길꺾	경능골 어귀 길가
⑩	이밭괴	이밭괴	이밖에
⑪	왼편팔을	왼편팔홀	왼편 팔을
⑫	비돌을	비돌홀	비석돌을
⑬	낮출	늑출	낮을

는 ‘용겸의 손을 달라 하여 쥐었다.’는 말로 해당 면이 팍 찬 상태로 끝이 났다. 즉, ‘가~’이후의 문장이 있었다면 다음 면에서 이어질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용겸의 손을 달라 하여 쥐었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처럼 보인다. 따라서 전사자가 일기가 끝이 난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

⑭	대스간갯흔	대스간갯툰	대사간 같은
⑮	그고디	그곳이	그 곳이
⑯	오연눌시는뜻을	오연눌시는쓰줄	오연올시는 뜻을

우선 자음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두 이본 간에 보이는 차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합용 병서로 표기된 어두자음군의 유무’와 ‘ㄷ(ㅌ), ㅅ(ㅆ)의 사용 여부’이다. 『壬寅遺事』본 <임인유교>에는 합용 병서로 표기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고, ㄷ(ㅌ)이 ㅅ(ㅆ)으로 대체되기 전의 표기 형태를 더 자주 보인다. 이런 사실들로만 본다면 『壬寅遺事』본 <임인유교>가 『遺教』본 <임인유교>보다 더 이른 시기의 한글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5세기의 ‘ㅁ’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고 난 뒤에도 ‘쁘다, 쓰다’가 한동안 혼용되었다는 점, ㄷ(ㅌ)이 입천장소리가 되고 나서도 ‘도타 ~ 쪼타’가 섞여 쓰였다는 점<sup>9)</sup> 등을 고려한다면 선본(先本) 확정에는 더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모음 영역에서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3. 한글본 이본 비교 : 표기상 차야-모음〉

번호	『遺教』본 <임인유교>	『壬寅遺事』본 <임인유교>	현대어 표기
①	붓그려우미업다ㅎ여	붓그리오미업다ㅎ야	부끄러움이 없다 하여
②	못ㅎ게ㅎ였다	못하게ㅎ얏다	못하게 하였다
③	부입ㅎ였다가	부입ㅎ얏다가	부입하였다가
④	츠자두게ㅎ여라	츠자두게ㅎ야라	찾아두게 하여라
⑤	턴헝으로사라난들	턴헝으로사라난들	천행으로 살아난들
⑥	상췌로보내여	상췌로보내야	상주로 보내어
⑦	엇더ㅎ리잇고	엇더ㅎ리잇가	어떠하겠습니까
⑧	이실적	이실적의	있을 적에
⑨	숙중대왕	숙중대왕	숙종대왕

9) 허용, 『국어학』, 샘, 1994, 330쪽.

⑩	옥등의이셔가마케	옥등의이셔가마케	옥중에 있어 까맣게
⑪	새야올때의	새야올때에	(날이)새어 올 때에
⑫	이날느준후의	이날느준후에	이날 늦은 후에

모음의 표기법상 차이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음조화의 여부’, ‘이중모음의 사용 여부’이다. 『壬寅遺事』본 〈임인유교〉가 『遺教』본 〈임인유교〉에 비해 비교적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 단모음으로 변하기 전의 이중모음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 표기의 측면에서도 『壬寅遺事』본 〈임인유교〉가 더 이른 시기의 한글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이상의 비교 결과를 요약하자면, 『壬寅遺事』본 〈임인유교〉는 세주 등으로 정보를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표기법의 측면에서도 『遺教』본 〈임인유교〉에 앞서는 선본(先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일기의 마지막 장면이 누락 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본 고의 목표가 한글 필사본과 한문 간행본의 이본 차이를 밝히는 데 있지 한글 필사본의 선본(善本) 확정에 있지 않으며, 다행히 두 종의 한글 필사본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두 이본을 모두 〈星山遺事〉와 비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는 『壬寅遺事』본 〈임인유교〉를 〈星山遺事〉와 비교하되, 누락이 된 마지막 부분만 『遺教』본 〈임인유교〉와 비교하겠다.

### 3.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의 이본 비교<sup>10)</sup>

사본(寫本)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책’을 말하는 것으로 유일성(唯一性), 보수성(保守性), 변이성(變移性)이 그 중요한 특성이다.<sup>11)</sup> 전사자가

10) 3장에서는 한글 필사본을 『遺教』본 〈임인유교〉와 『壬寅遺事』본 〈임인유교〉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임인유교〉로 통칭하여 서술을 간명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 미진한 곳 등을 자기 견해대로 개작하는 경우, 저본(底本) 선택 과정에서 혼성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자기 기호에 맞게 개작하는 경우 등에 의해 문헌은 변이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본이 생겨난다.<sup>12)</sup> 〈임인유교〉의 한글 필사본 2종도 이본 발생의 이러한 조건이 조금씩 개입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비교 결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한글 필사본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 사이에는 이보다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 사이에 어떤 내용상, 표기 형식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 1) 내용상 차이

〈임인유교〉에는 있으나 〈星山遺事〉에는 없는 내용이나, 반대로 〈星山遺事〉에는 있으나 〈임인유교〉에는 누락된 내용을 먼저 검토한 결과, ‘한시 전문(全文)’, ‘특정 발언이나 장면’, ‘추가 정보’를 기록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 (1) 한시 전문 기록 여부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에는 부군(김창집)이 시를 짓는 장면이 5차례 등장하는데 이때 지은 시는 모두 7편이다. 〈임인유교〉의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즉시 붓을 찾아 글 들을 쓰시니 오언율시는 뜻을 보이신 것이고 오언고시는 승지(아들 김제겸)에게 부치신 것이다.

11) 류탁일(1989), 앞의 책, 4~7쪽.

12) 류탁일(1989), 위의 책, 7쪽.

- ② 민태가 그 막내아들 통수를 보내어 조회하고 또 사언시 한 편을 드리니 부군이 즉시 그 글을 차운하여 보내시고
- ③ 이명룡이 필적을 얻고자 하니 부군이 오언고시 한 편을 지어 써 주시고
- ④ 닭 울 때 선왕고 임명(臨命) 때 지으신 칠언절구를 차운하시고 누워서 입으로 불러 신경으로 하여금 쓰도록 하시고 이윽고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 손수 칠언율시 한 편을 쓰시니 이는 삼연공이 제야(除夜)에 섬으로 지어 보내신 운을 차운하신 것이다.
- ⑤ 또 도사 재촉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제가 조정암의 자손이면 어이 저희 할아버지 일을 돌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토록 꺾박하느냐. 곧 한 절구를 입으로 지어 읊으시되, 애군여애부(임금 사랑함을 아버 사랑함 같이 하니) 천일조단충(하늘날이 붉은 마음을 비추었도다) 선현차귀어(선현의 이 글귀 말이) 비절고금동(비절함이 고금에 한가지라)<sup>13)</sup>

전후 상황과 함께 차례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금부 도사가 후명을 가지고 도착했는지 묻는 부군에게 신경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곧 당도할 것이라며 걱정하니, 부군이 ‘기사년에 선인(김수항)께서 진도에

13) 인용문의 현대어 표기는 필자.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즉시붓을쳐자글들흠쓰시오언늘시는쓰줄뵈시미오오언고시는승지찌브티신겨실러라
- ② 민티그말재아들통슈를보내여조회하고또스언시일편을드리니 부군이즉시그글을차운하야보내시고
- ③ 니명룡이필적을어더지라한대 부군이오언고시한편을지어써주시고
- ④ 닭울때에선왕고님명때지으신칠언절구를차운하시고누어입으로불러신경하야쓰시고이윽하야니불을두르고니러안즈손조칠언늘시한편을쓰시니이는삼연공이제야의도동의지어보내신운을차운하시다
- ⑤ 또도시지촉하물드르시고니르시디제도명암의즈손이면어이저희한아버님일을도라성가지아니하고사름을이대도록꺾박하느냐곳에한절구를입으로지어을프시디  
 이군여애부 님금사랑하물아버사랑하듯치하니  
 천일조단충 하늘날이붉근마음을비취었또다  
 선현차귀어 선현의이글귀말이  
 비절고금동 비절하미고금의한가지라

유배 가셨을 때도 국문(鞫問)에 나아갈 것을 대비하여 원정초(原情草)를 장만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거절하셨다. 나도 차라리 여기서 명을 받고 싶다. 다만, 아들 손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동궁의 안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편의 시를 지으셨다. '오언율시 1편은 그 뜻을 드러낸 것이고, 오언고시 1편은 아들 제겸에게 부친 것'이라는 설 명이 덧붙여 있다. ② 민판서가 막내아들 통수를 통해 부군에게 위문하는 시 한 편을 보내왔다. 부군이 이 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③ 환발배소(還發配所)<sup>14)</sup>하라는 명이 내릴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28일 초경(初更)에 금부 공문이 내려왔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환발배소의 명을 도로 거둔다는 기별이라 사람들이 놀라고 낙심하여 우왕좌왕하는 소란이 일었다. 이경(二更) 즈음 부군이 목욕계계하고 있을 때 이명룡이 글을 청하자 부군이 오언고시 한 편을 짓고 써 주었다. ④ 7월 29일 닭이 울 때쯤, 부군은 다시 시 2편을 짓는다. 한 편은 선왕고(김수항)께서 명을 받으실 때 지은 칠언절구를 차운한 것이고, 한 편은 삼연공<sup>15)</sup>이 부군(김창집)의 유배지였던 거제도도 보내왔던 칠언율시를 차운한 것이다. ⑤ 마지막으로 부군이 지은 시는 후명을 받은 뒤 도사가 재촉하는 것을 보고 지은 것으로, 시를 짓게 된 정황과 시의 전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살펴본 것처럼 <임인유교>에는 대부분 시를 짓게 된 정황과 관련 정보만이 서술되어 있고 정작 부군이 지은 시의 전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임인유교>에 언급만 된 이 시들(①~④)의 전문은 모두 <星山遺事>에는 수록되어 있다.<sup>16)</sup> 다만, 마지막 ⑤의 경우만 시를 짓게

14) 유배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

15) 삼연공(三淵公) 김창흡은 김수항의 셋째 아들이다. 일기에서 부군으로 지칭되는 김창집이 김수항의 장남이니 삼연공은 부군의 둘째 아우이다.

16) 『檜巢集』 卷10 <星山遺事>에 실려 있는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된 전후 사정과 시의 전체 모습이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한글 필사본에 한시 전문이 생략된 이유는 한시를 국문으로만 썼을 때 발생하는 의미 전달의 문제와 주 독자층이 집안의 여성이나 어린 남자들이므로 굳이 한시를 제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sup>17)</sup>이다. 특히 의미 전달의 문제가 한시 전문 기록 여부에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일기에 삼연공의 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풍동녹죽보신추 바람이 푸른 대를 움직여 새 가을을 보(補)한단 말이다.  
 백안초비형화류 흰 기러기 처음으로 날고 반딧불이 흐르단 말이다.  
 풍지만슈무 바람이 불면 일만(一萬) 나무가 춤 춘다는 말이다.<sup>18)</sup>

삼연공은 일기에서 부군으로 지칭되는 김창집의 동생이자, 양검과 치검

① 五律見志 詩曰, 欲報先王德 孤忠質鬼神 所論多許世 斯禍敢尤人 雲斷蒼梧暮 花開玉座春 帝鄉還可樂 灑落舊君臣. 五古一首寄濟謙 其詩曰, 與汝分携路 吾今被逮過 汝先八圓扉 待我意如何 三世一牢陸 此禍古無多 死生但任天 公議分賢邪.

② 遂次四言韻回呈其詩曰, 攀髯莫及 嗟我奚適 斷斷危忠 夷險不擇 報效曾蔑 一死循國 先王鑑臨 實無愧作.

③ 府君詠五古一篇書與之 詩曰, 汝早寄吾家 相視猶父子 半世共休戚 永言保恩義 隨我入拊棘 嶺海杳千里 有子不相隨 非汝誰復倚 那知被逮路 忽聞賜我死 見爾號且泣 自然傷我意 收骨是爾責 勉爾且收淚 吾兒出圓扉 若爲傳此事.

④ 鷄鳴次先王考臨命時七絕韻 口號使信謙書之 詩曰, 聖世曾無塵露裨 此時罹禍豈非宜 巖廊白髮惟衷赤 謾荷先王特達知. 少頃擁衾起坐 手書七言一律 此卽次三淵公除夜寄島中韻也 詩曰, 孤燭青燐問幾更 自然臨命意難平 隣鷄喔喔夜何短 城角鳴鳴天已明 吉語乍傳那足喜 凶音更至不須驚 泉臺此去隨諸弟 應勝人間獨苟生.

17) 이승복(1997), 앞의 논문, 58쪽.

18) 인용문의 현대어 표기는 필자.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풍동녹죽보신추 바람이푸른대를움직여새가을을보(補)한단말이라  
 백안초비형화류 흰기러기처음으로날고반딧불이흐르단말이라  
 풍지만슈무 바람이니르면일만(一萬)나무가춤추단말이라

의 아버지이다. 양겸과 치겸이 큰아버지인 김창집에게 자신들의 돌아가신 아버지 삼연공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장면이 일기에 등장한다. 특히 삼연공은 시로 이름이 높은 인물이므로 양겸과 치겸이 부군에게 아버지 삼연공의 시에 얽힌 일화를 물었다. 부군이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사이에, 곁에 있던 신겸이 대신 이 시를 생각해내고 부군에게 확인차 여쭙었다. <임인유교>에는 대화 중에 언급된 삼연공의 시와 그 시의 내용이 병기되어 있다. 이처럼 시의 전문이 대화 중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를 생략하지 않는 이상 시의 독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시의 독음만을 적는 것보다는 시의 뜻을 풀이하여 병기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 한글로 시의 독음만을 기록해서는 시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로 한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병기 하지 않는 이상 독음만으로 시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임인유교>에는 부군이 지은 시가 독음만으로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한글 필사본에 한시 전문이 실려 있지 않은 이유가 한글 독음만으로는 한시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고, 한글본은 주 대상 독자층이 ‘중세의 중심 문학 담당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칫 <임인유교>가 <星山遺事>에 비해 문헌적 가치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쉽게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임인유교>가 <星山遺事>에 비해 문헌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전문이 실려 있는지의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생략이나 누락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비교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요컨대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에 한해서는 한시 전문의 기록 여부가 두 이본 간의 우열을 증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한 표기 문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차이일 따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특정 발언이나 장면의 유무

‘특정 발언이나 장면’이 〈星山遺事〉와 〈임인유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만 기록된 예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말로 두 이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sup>19)</sup>

〈표4.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이본 비교 : 내용상 차이-특정 장면이나 발언〉

번호	〈임인유교〉	〈星山遺事〉
①	×	東宮苟安吾輩死亦何恨
②	므릇우리즈손이벼슬흐면맛당히현요흐디피하라햐겨시니 이거시선훈이오이밧근드른말습이아니겨시니라	×
③	피시니들이흐되더것들이응당연좌쌍디히고말리라하니 부군 이니르시디그러면승지죽고너희들쌍디분찬홀겨시니참혹다	×
④	(상후의안부를무르시니)도사 두렷두렷하고디답못햐야흐디 니민창쉬섬아래서서천세천세하니도사그대로디답하더라	×

이 가운데 ①은 〈星山遺事〉에는 있으나 〈임인유교〉에는 보이지 않는 내  
용이고, 나머지 ②~④는 반대로 〈임인유교〉에는 있으나 〈星山遺事〉에는 없  
는 내용이다. 비록 사례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한 이본에만 있는 내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된다면 그 이본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긴할 것이다.

①은 〈星山遺事〉에만 있는 내용이다. ‘동궁이 안전하다면 죽음이 한스  
럽지 않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부군의 이 말씀은 〈임인유교〉에는 생략되  
었다. 이때의 ‘동궁’은 훗날 영조를 가리킨다. 김창집의 가문은 부침이 심했

19) 인용문에 대한 현대어 표기(필자)는 다음과 같다.

- ① 동궁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무슨 한이 있겠는가?
- ② 므릇 우리 자손이 벼슬하면 마땅히 현요한 데 피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훈이오,  
이 밖에 다른 말씀이 아니 계시니라.
- ③ (결에서) 모시고 있는 이들이 하되 저것들이 응당 연좌까지 하고 말리라 하니  
이르시되 그러면 승지 죽고 너희들까지 분찬할 것이니 참혹하다.
- ④ (상후의 안부를 무르시니) 도사 두렷두렷(쭈뻐쭈뻐?)하고 대답을 못하더니 민창  
수가 섬 아래 서서 천세천세하니 도사 그대로 대답하더라.

으나 결국엔 조선 후기 조정을 장악했던 명문거족이다. 일기의 배경이 된 신임사화 당시 가문이 멸문의 직전까지 갔지만, 영조가 즉위하고 난 뒤 가문은 부활하였다. 그런데 영조에 대한 충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 문장은 간행되어 전하는 한문본 〈星山遺事〉에만 있다.

나머지는 모두 〈임인유교〉에만 있는 것이다. ②와 ③은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선대 어른의 유훈과 후손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②는 민창수(사위)가 ‘유훈을 어겼다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을 묻자, 부군이 유훈의 내용을 다시 정확히 짚어주는 장면이고, ③은 사람들이 후손들도 연좌될 것이라 걱정하니 부군이 ‘아들인 승지도 죽을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도 유배될 것이 분명한 이런 상황이 참혹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④는 부군이 상후(上候)의 안부를 물었는데 도사가 대답을 못 하고 있다. 민창수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유배 압송관인 의금부 도사 조문보에 대한 조롱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점잖지 못한’<sup>20)</sup> 서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노골적인 조롱의 표현 때문에 점잖지 못해서 간행본에는 실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임인유교〉가 〈星山遺事〉에 비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을 내포한다. 그렇게 본다면 도사 관련 마지막 장면은 다소 조심성 없는 불필요한 서술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인유교〉가 일관되게 진지한 서술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느닷없이 마지막에 가서 의금부 도사를 조롱하는 듯한, 점잖지 못한 서술을 뚜렷한 의도 없이 했을 리가 없다. 이 장면에 앞서 ‘제가 조정암의 자손이면 어이 저희 할아버지 일을 돌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토록

20) 이승복(1997), 앞의 논문, 59쪽에는 도사가 당황하는 모습이 한문본 〈星山遺事〉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집안의 자손들을 1차적 대상으로 하는 국문본의 경우는 큰 상관의 없겠지만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 문집에 수록되는 글의 경우에는 점잖지 못한 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뽕박하느냐.’라는 부군의 말씀이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사에 대한 이 부분의 서술은 부군 또한 조정암처럼 무고히 유배되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의금부 도사인 조문보의 어리숙함과 비정함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정치 권력보다 부군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도사의 당황하는 모습을 서술한 것은 단순한 적의나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가문 내부의 독자들에게 부군의 무고함과 도덕적 우월성 등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글 필자본 <임인유교>에만 있는 내용은 가문 외부의 사람들보다 가문 내부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정보이거나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고,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에만 있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반드시 드러낼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즉, 두 이본의 차이는 <임인유교>가 조상의 유훈을 정확히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자 어른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인 가문 내부의 구성원들을, <星山遺事>는 가문 외부의 사람들을 각각 염두에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추가 정보의 차이

두 이본 간에 보이는 ‘추가 정보’의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1)</sup>

〈표4.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이본 비교 : 내용상 차이-추가정보〉

번호	<임인유교>	<星山遺事>
①	니명농	叔李命龍
②	중구나평강	仲舅
③	두누의님	兩閔姊

21) 〈표4〉 안의 <임인유교> 인용문을 순서대로 현대어 표기(필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명룡 ②중구 나평강 ③ 두 누님 ④ 이곳 오원의 오진사라 ⑤ 남해 상공 소재 ⑥ 죽시 붓을 찾아 글 돌을 쓰시니 ⑦ 정자깨 정자깨는 장단이라 ⑧ 파주 마정리 마정리는 파주라 ⑨ 승지택 내외 및 서흥택 형제에게와 이 밖 여러 곳 ⑩ 환수 두 자

④	이곳오원의오진스라	此卽吳瑗
⑤	남희상공疎齋	南海相公
⑥	즉시붓을츠자글들홀쓰시니	卽索筆寫
⑦	정즈깨정즈깨논당단이라	亭子浦
⑧	파주마덩리마덩리는파췌라	坡州馬井里
⑨	승지덕니외미서홍덕형데의게와이뵈려러곳편지를쓰시다	作諸處書
⑩	환슈두즈	二字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에는 어떤 인물이 언급될 때 종종 세주의 방식을 이용하거나 본문에 몇 글자를 더 넣어서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보충한 경우가 많다. 가령, 그 인물과 서술자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거나(①叔), 직책이나 이름, 호(號) 등의 정보를 보충(②나평강 ④오진스 ⑤疎齋)하기도 하고, 누이를 가리킬 때 누이가 출가한 가문의 성씨를 함께 밝혀 주기도 한다(③閨). 비교 결과, 인물 관련 정보에 있어서 〈星山遺事〉와 〈임인유교〉에 위와 같은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들을 근거로 어느 이본이 더 상세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지명 등을 포함한 기타 정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냥 ‘글자를 썼다.’라고만 하기도 하나, 몇 글자인지를 밝히거나(⑥둘), 쓴 글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함께 쓰기도 하고(⑩환슈), 언급된 지명의 다른 명칭을 부기하기도 하였다(⑦당단 ⑧파췌). 부군이 보낸 편지의 수신인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서도 차이를 보였다(⑨승지덕니외미서홍덕형데의게와이뵈려러 곳). 비교 결과, 지명 등의 기타 정보에 있어서 〈임인유교〉가 〈星山遺事〉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각 이본은 그 작품을 읽게 될 예상 독자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 하는 정보를 나름대로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이본의 상대적 완결성이나 우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2) 표기 형식상 차이

무엇보다도 <임인유교>와 <星山遺事>를 구분 짓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표기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문이나 중세 한글은 띄어쓰기는 하지 않지만, 문맥상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나올 때는 글자 앞에 한 칸을 띄움으로써 존경과 높임을 표현한다. 그런데, <임인유교>와 <星山遺事>는 바로 이 글자를 띄우는 위치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는 띄우는 위치를 표시)<sup>22)</sup>

<표6. <임인유교>와 <星山遺事> 이본 비교 : 표기 형식상 차이>

<임인유교>	○부군/○비답/○던교/○선비/○선인/○호조판서/○턴의/○조고비/○왕고/○스므여드랜날/○상후/
<星山遺事>	後○命/不承○明命/○先王/受○命/○東宮/○肅宗/○宗社/○恩命/○朝廷/○國恤/○恩眷/○賜御/○天意/○國賜/○上/○傳命/○先祖舊臣/臨○命/○聖世/○先王/○傳旨/○宜旨/

<星山遺事>는 ‘後命, 不承明命, 受命, 臨命’등 ‘임금의 명命’과 관련된 글자 앞은 반드시 비웠다. ‘나라, 조정’ 등과 관련된 글자 앞도 마찬가지로 그 앞을 비워 높임을 드러냈다. 그런데 <임인유교>는 ‘부군(府君), 선인(先人), 선비(先妣), 조고비(高祖妣?), 왕고(王考)’ 등 집안 어른을 지칭하는 글자 앞은 비움으로써 존경을 드러냈다. 왕이나 나라를 지칭하는 글자 앞은 서너 번만 제외하면 일관되게 비우지 않았다.<sup>23)</sup>

이로써 두 작품이 각각 어떤 예상 독자를 염두에 두었는지가 또다시 명

22) <표6> 안의 <임인유교> 인용문을 순서대로 현대어 표기(필자)하면 다음과 같다. 부군(府君)/비답(批答)/전교(傳敎)/선비(先妣)/선인(先人)/호조판서/천의(天意)/고조비(高祖妣?)/왕고(王考)/스므여드렛날/상후(上候)

23) 이런 띄어쓰기가 두 이본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다. 가령, <임인유교>는 전반부에는 ‘부군’ 외에는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다가 중반부터 가문의 어른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 앞에 띄어쓰기했다. <星山遺事>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드물게 발견된다.

확히 드러난다. 〈임인유교〉의 주요 예상 독자는 가문 내의 구성원들이고, 〈星山遺事〉는 가문 외부의 사람까지 염두에 두었다. 즉, 〈임인유교〉와 〈星山遺事〉의 표기 형식상의 차이는 두 이본이 어떤 독자층을 겨냥하였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 4. 결론

전승 형태에 따른 유배일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를 비교해 보았다.

내용상으로는 ‘한시 전문’, ‘특정 발언이나 장면’, ‘세부 정보’의 측면에서, 표기 형식상으로는 높임을 드러내는 띄어쓰기의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시 전문’은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에만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글과 한자라는 표기 문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특정 장면이나 발언’이 어느 한 이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각 이본이 독자로 상정하는 대상이 가문 내부의 사람인지 가문 외부의 사람인지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인물이나 지명 등에 대한 ‘추가 정보’에서도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상세함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기 형식상의 측면’에서는 존경을 표시하는 띄어쓰기에 있어서 이본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각 이본이 드러내고자 하는 존경의 대상이 누구인지, 결과적으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작품의 이본 가운데 필사본과 간행본이 동시에 존재할 때, 필사본은 간행본에는 차마 기록하지 못하는 혹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필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용이 누락 되거나 오류를 품은 채 전승된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한글본과 한문본이 동시에 존재할

때도 비슷하다. 한글본은 한문본과 달리 그 주 독자층이 비식자층에 속하므로 문헌으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할 것이라 여긴다. 이처럼 고전 텍스트를 대할 때 ‘필사본에 비해 간행본의 내용이 더 정제되고 문헌적으로 완성된 형태’이고, ‘한글본의 독자층과 한문본의 독자층이 비교적 엄격히 구분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는 그 생각이 크게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문의 어른이 겪은 유배라는 사건을 후손들에게 남긴 유배일기는 이러한 상식에서 조금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 결과 한글 필사본 〈임인유교〉와 한문 간행본 〈星山遺事〉는 문헌의 완결성이나 우수성에 있어서 우열을 나누기 어려웠고, 표기 문자만으로 독자층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과 표기 형식상에 보이는 작은 차이들을 통해 두 이본은 명확하고 변별적인 나름의 독자성을 드러냈다. 작은 차이들이지만 어느 한 이본이 다른 이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김창집 가문의 한 독자가 부군이 지은 시의 전문이 다 실려 있는 한문 간행본인 〈星山遺事〉를 읽었다고 해서 한글 필사본인 〈임인유교〉를 읽지 않는다면, 〈임인유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문 내부의 구성원을 향한 부군의 걱정과 사려 깊은 정보들, 집안의 어른들을 임금 못지않게 존경한 필사자의 마음 등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임인유교〉는 〈星山遺事〉와 표기 문자만 달리한 복제품이라기보다는, ‘가문 내부의 구성원들’이라는 독자층을 명확히 특정하고 만들어진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본 간에 보이는 작은 차이들은 각 이본의 주 독자층에 대한 전승자의 배려와 심사숙고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이본이 보이는 작은 차이는 대상 독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만들어낸 차이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星山遺事〉(『檜巢集』 卷10)  
『遺教』(이승복, 「遺教(원문 및 주석)」, 『문헌과 해석』 5, 문헌과 해석사, 1998, 174~215쪽)  
『壬寅遺事 夢窩星州遺教 附竹醉富寧遺教』(가람 古 923.251 G415g)

### 2. 논저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517~533쪽.  
\_\_\_\_\_,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1~384쪽.  
김정은, 「조선시대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영남문화연구원, 2020, 7~36쪽.  
류탁일, 『韓國文獻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1~561쪽.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 쓰기」, 『한국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73~118쪽.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41~75쪽.  
이승복, 「〈遺教〉의 書誌와 文學的 性格」, 『규장각』 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55~73쪽.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  
\_\_\_\_\_, 「한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39~364쪽.  
허 응, 『국어학』, 샘, 1994. 1~475쪽.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910쪽.

ABSTRACT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ary of the Exile (1)  
- Comparison of 〈Iminyugyo〉, 〈Sungsanyusa〉

Cho, Su-mi

In general, diaries of exile are handed down in the form of the only manuscript, and some are also handed down in public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le diary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type, we first selected the Korean manuscript 〈Iminyugyo〉, and the Chinese publication 〈Sungsanyus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Korean manuscript 〈Iminyugyo〉 and the Chinese publication 〈Sungsanyus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recording “Chinese poetry full text”, “specific remarks or scenes”, and “detailed information”,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spacing indicating that it was high in the form of notation.

By the way. In terms of the completeness or excellence of the literature, one copy was not dominant enough to overwhelm the other. However, it was not completely identical and showed a slight difference, resulting in these subtle differences that prevented one copy from completely replacing the other. In other words, reading not only the Chinese publication but also the Korean manuscript together means reading the works of 〈Iminyugyo〉.

The two main books can be said to be the same work in terms of their contents, but due to the small but important differences seen in the content and notation format, each copy contains its own discourse, which is fine but clear and distinct.

**Key Words** 〈Iminyugyo〉, 〈Sungsanyusa〉, a Korean manuscript, a publication of Chines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논문투고일: 2024.01.15.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